

〈에벤에셀의 하나님〉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4/29(주일) 설교 내용

사무엘상 7:3-12

1. 오늘 말씀에서,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세가지 방법은,

- ①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 ② 예배에 적극적일 때
 - ③ 기도할 때
- 라고 했습니다.

위의 세가지 방법들 가운데,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단답형의 대답이 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 이유’도 물어보면 더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진솔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교회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2018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교회와 또 내 인생을 돌아보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지난 주일은 우리교회가 창립 17주년을 맞는 주일이었습니다.
목장안에는,
우리 교회에 오신지 오래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얼마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교회의 성도로 지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나누어 주십시오.

더불어,
각자의 인생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되돌아 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눔을 마무리 하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